

1980년대 과학진흥정책 홍보영화

<꾸러기 발명왕>의 프로퍼간다적 성격에 대한 연구

박유신

초 록

이 연구는 1984년 김청기에 의해 제작 및 감독된 <꾸러기 발명왕>의 프로퍼간다적 성격을 분석한다. <꾸러기 발명왕>은 과학교육영화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 영화가 제작된 1980년대에 첨단 과학은 새로운 정권의 국가발전 이데올로기였으며 과학교육은 국의가 부의 창출을 위한 개개인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꾸러기 발명왕>은 사실상 과학 교육에 대한 영화가 아닌, 80년대의 국가 권력의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퍼간다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치열한 연구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그린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뜯어 장군 등 김청기 감독 필모그래피의 일련의 국가 정책 홍보영화의 연장선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꾸러기 발명왕>을 1차대전 이후의 다양한 프로퍼간다물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이 영화가 지니고 있는 정치선전적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오늘날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꾸러기 발명왕, 과학교육, 프로퍼간다, 김청기, 정치선전, 1980년대.

I. 서론

근대 사회에서 교육은 종종 선전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다. 정치학자이며 초기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라스웰(Laswell)은 “선전이란 의미 있는 상징적 기호의 조작을 통해 대중을 관리하는 조직적 기도”로 정의했고, 선전과 교육을 비교하며, “선전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태도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교육은 사

회적으로 인정되는 태도나 기능의 전수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개념의 정교화와 중립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¹⁾ 선전과 교육이 혼재되어 사용되게 된 데에는 사실상 중립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였던 선전, 즉 프로퍼간다(proparganda)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정치적 메시지와 관련을 맺게 되었으며 소비에트 러시아나 나치 독일 등이 공공연히 공식어에서 ‘선전’이라는 단어를 사용

1) 박성희, 「프로퍼간다의 문법: 버크의 드라마티즘에 기초한 1960년대 <대한뉴스>의 집단동기 분석」 『韓國言論學報』, 53권 1호, (2009,02), 328쪽.

함으로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게 됨과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전보다는 ‘정보사업’ 이나 ‘대중교육’ 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선호하였다.²⁾ 따라서 근대 국가 체계 안에서 제작된 특정 예술작품이 ‘교육적’ 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 될 때, 이것이 문자 그대로 중립적인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혹은 정치 선전, 즉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해당 시대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더욱이 어린이들을 주요 관객으로 상정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경우 비정치적이며 중립적으로 들리는 ‘교육적’ 이라는 수식어는 보다 정교하게 그 의미가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과거의 텍스트는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텍스트들과 수용자들 역시 그 생산과 수용의 연속선상에서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위한 교육영화의 경우 비판적 수용에서 관대하다는 점에서 영화의 숨은 의미 읽기는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

1984년 제작된 <꾸러기 발명왕>은 교육 영화가 프로파간다적 속성을 지니고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꾸러기 발명왕>은 김청기 감독의 작품 중 유일하게 교육영화를 표방하고 있다. 영화의 포스터에는 “만화영화사상 영원히 남을 사랑과 감동의 과학 학습영화” 라고 써어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꾸러기 발명왕>은 교육 영화로 평가되어 왔다.³⁾ 그리



그림 1) <꾸러기 발명왕> 포스터

나 이 글은 영화의 포스터에서 주장하고 있듯, <꾸러기 발명왕>을 비정치적인 ‘과학학습영화’ 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본 글에서는 <꾸러기 발명왕>이 과학학습영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책 홍보 영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더 나아가 80년대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담아내고 있는 영화임을 밝히고자 한다. 영화의 주제인 과학 교육은 1980년대 제 5공화국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70년대의 반공 이데올로기만큼 강조된 국가의 중요한 정책 기조인 기초과학육성과 깊은 관련이 있

을 위한 과학동화이다. 과학을 소재로 그 안에서 경쟁과 우정을 함께 쌓는 주인공들의 성장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과학의 꿈을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유년시절의 눈을 통한 그 시절의 향수를 느끼게 해준다.” 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꾸러기 발명왕>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_aid=05292&mul_id=6753&file_id=7510

2) 토비클락, 『20세기정치선전예술(Art and Proparganda in the Twentieth Century : the Political Image in the Age of Mass Culture)』 이순령 역, (예경1997/2000),7~8쪽.
3) 2009년 5월 한국 영상자료원의 VOD기획전인 「반갑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영화에 대하여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던 김청기 감독이 직접 제작과 감독을 맡은 어린이들

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꾸러기 발명왕>이 제작된 시대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화의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과학교육정책의 1980년대에서의 역사적 함의를 살펴봄, 어린 발명소년소녀들의 성공담을 담은 이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꾸러기 발명왕>의 프로퍼간다적 성격을 밝혀내기 위해, 세계 제 1차 대전부터 제작되어 온 정치선전물들, 그리고 1970년대의 프로퍼간다 영화인 <팔도강산>과 <대한뉴스>에 대한 분석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선전, 즉 프로퍼간다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용자를 상대로 주도면밀한 상징의 조작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볼 때,⁴⁾ <꾸러기 발명왕>이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거나 설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이 영화가 특정 지식을 전달하는 학습물이 아닌 프로퍼간다물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비 클락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정치 운동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의사전달 방식들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구축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미술은 영화, 잡지, 광고, 대중음악, 보다 최근에는 텔레비전과 컴퓨터 네트워크 등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이미지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이러한 체계 내부에서 작동한다고 말한다.⁵⁾ 따라서 프로퍼간다 영화나 미술, 포스터 등과의 비교는 이 영화의 프로퍼간다적 속성을 밝히는 데에 유용한 분석적 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영화 안에 나타나 있는 국가 권력의 이미지를 분

석함으로서 <꾸러기 발명왕>이 과학교육 장려라는 일견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작품의 표면적인 주제보다 한층 강력하게 80년대 국가 권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영화는 정부와 일반 사회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관심 대상이었다. 영화는 정부와 유사 검열기관에게 검열당하고(도덕적 공황의 시대에), 통제받고(전시에), 원조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다큐멘터리와 교육 영화들은 정부 간섭을 좀 더 많이 받았다.⁶⁾ 한국의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시대의 정치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음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 김청기 감독의 70년대 작품인 <똥이 장군>이 반공이념을 반영하고 있으며,⁷⁾ <로봇 태권V>가 태권도를 하는 거대한 로봇의 몸으로 강화된 민족주의적 감수성과 테크놀로지를 통한 국가 발전에 대한 환상을 반영하고 있다는⁸⁾ 견해들은, 한국의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감독의 개인적 맥락이 아닌, 시대적 맥락과 사회적 혹은 정치적 요구를 전달하는 미디어로 기능해 왔음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교육영화 <꾸러기 발명왕>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사 안의 프로퍼간다적 계보 위에서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비정치적이라고 간주되어 온 교육 애니메이션 영화 안에 내재된 프로퍼간다적 메시지를 밝히는 것은 한국에서 제작되어 온 교육 영화들의 설

4) 방정배, 최윤희, 『여론과 정치설득』 (나남출판, 1989). 337쪽.
5) 토비 클락, 앞의 책, 14쪽.

6) 제프리 노웰 스미스, 「사회주의, 파시즘, 그리고 민주주의」 『옥스퍼드 세계 영화사(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 제프리 노웰 스미스 편, 이순호 외 역, (열린책들 1996/2005), 400~401쪽.
7) 김정연·김재웅, 「한국애니메이션에 있어 문화정책의 영향과 그 변용 : 1960~1980년대 중반, 반공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 학회지』 (한국 콘텐츠 학회, 2007).
8) 김준양, 「<로봇 태권V>와 두 가지의 근대」 『로봇태권V 기술복원백서』, (영화진흥위원회, 2005).

특적 구조 분석을 통해 그 속성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며,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사 안의 다른 작품의 분석에 있어서도 재료가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II. <꾸러기 발명왕>과 1980년대의 과학기술진흥정책

<꾸러기 발명왕>이 제작된 1984년 당시 과학교육 및 과학영재 육성 등은 국가적인 관심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의 원인으로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인 과학교육 열풍, 두 번째로는 1980년대 초반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동원되기 시작한 낙관적 과학기술관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의 ‘기술 드라이브’ 정책으로 과학 기술 발전이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을 이루게 되면서, 낙관적 과학 기술관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동원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⁹⁾ 과학기술진흥은 순수한 과학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과학과 인간을 도구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후자 뿐 아니라 전자 역시 신냉전시대의 보수적이고 국가중심적인 국제정세와 관련이 있었다는 점이다. 과학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이와 같은 정치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꾸러기 발명왕>의 제작 배경을 살펴보고 1980년대에 과학교육과 첨단과학기술진흥정책이 지니는 시대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꾸러기 발명왕>의 제작 배경

1984년 제작된 <꾸러기 발명왕>은 <로봇 태권브이>시리즈나 <똥이장군>등으로 유명한 김창기 감독의 필모그래피 중에서는 다소 이질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동시대(장면에 따라서는 근미래로 보이기도 한다.)의 평범한 소년 소녀들이 발명에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연구를 거듭하여 마침내 과학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적군과의 전투나 로봇의 대결 등이 주된 내용이었던 70년대의 SF애니메이션 영화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며, 김창기 감독의 작품 중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다윗과 골리앗>(1983)과 <초합금 로봇트 쏘라 123>(1983), <84 태권브이>(1984) 등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꾸러기 발명왕>은 김창기 감독의 작품 중 유일하게 교육영화를 표방하고 있다.

김창기 감독의 교육영화 제작은 제 5공화국 당시의 SF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및 교양물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SF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 내부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1980년대, 즉 신군부의 등장 이후에는 직접적인 재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허인옥은 당시의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제 5공화국의 출범과 동시에 TV에서는 SF애니메이션이 금지되었으며, 1980년의 TV개편에서는 오락물을 줄이고 교양물을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 그때까지 방영되던 SF 애니메이션을 폐지하고 어린이 드라마를 신설하기도 하였

9) 윤정로, 『과학기술과 한국사회』 (문학과지성사, 2000), 23쪽,

으며 '만화는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정서순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등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재제가 강화되었다고 적고 있다.¹⁰⁾ 이 대목은 당시 정부가 만화 및 애니메이션의 오락적 기능보다는 교양적 기능에 보다 주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꾸러기 발명왕>의 보다 직접적인 제작 배경은 김청기 감독의 2009년 영상자료원과의 인터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꾸러기 발명왕> 같은건, 그 때, 국가에서 우리나라 기초과학에 대한, 어린이들한테서 과학의 꿈나무를 키우자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그 때 문화관광부에서 한 번 이런 걸 만들면 어떨겠느냐 자기네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 동원같은 것 한 번 해보겠다. 뭐 그렇게 한다면야 내 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꾸러기 발명왕>.....” ¹¹⁾

김청기 감독의 인터뷰는 이 영화가 정부의 제안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며, <꾸러기 발명왕>이 정부의 정책 홍보 의지 및 애니메이션 영화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어우러진 결과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학생 동원 등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작품의 크레딧 등에 정부의 직접적인 제작 지원 등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 등도 유추할 수 있다.

인터뷰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초과학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사실상 <꾸러기 발명왕>의 직접적인 제작 배경이었다. <꾸러기 발명왕>이 제작된 1984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교육을 강조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에 국가 경쟁력 강화의 원천이 있음을 강조하고, 정책적으로 과학교육 및 과학영재육성,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방안 속에는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뿐 아니라 저널리스트 양성이나 과학지 발간 등의 대중 매체를 이용한 홍보에 관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꾸러기 발명왕>과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의 제작 배경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꾸러기 발명왕>의 탄생 배경에는 1980년대 당시 정권의 과학교육과 교육적인 아동물에 대한 관심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1980년대 과학교육의 국가주의적 의미

1980년대의 과학교육과 기초과학육성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인 것이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보다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의 보수적 시대 분위기, 그리고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권의 탄생이라는 정치적 맥락을 지니고 있었다.

1) 과학교육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그 의미

1983년 미국 정부는 ‘국가의 위기(A Nation at Risk)’라는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 1957년의 스푸트니크 충격¹²⁾ 못지않은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 보고

10) 허인옥,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사』, (신한미디어, 2002), 77쪽

11) 「[특별인터뷰] 애니메이션 감독 김청기를 만나다」 2009년 5월, 영상자료원.

12) 스푸트니크 충격이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로 인한 미국인들의 충격으로 이는 미 과학교육에서 혁신이 일어

서의 내용에서는 1969년, 1973년, 1977년의 전국 과학 학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17세 학생들의 과학 성적이 끊임없이 저하되고 있으며 미국의 전체 학력이 끊임없이 저하되고 있고, 수학과 과학 교사가 부족하며 미국 국민의 10%가량이 기능적 문맹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을 수학과 과학교육의 취약점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하는 미국교육: 1995년까지 미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세계 최고의 학력을 성취시키기 위해, 수학, 과학, 기술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계획서」를 마련하고 1984년 이를 공표하였다.

미국의 과학교육정책의 기초를 보여주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서는 수학, 과학 및 기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정보공학과 비형식적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국가의 위기(A Nation at Risk)' 라는 서한의 제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했음을 보여주기에도 한다. 이는 1970년대의 진보주의 교육에 대항하는 레이건 정부의 새로운 교육관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국가 주도의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 영국에서는 1981년 과학과 기술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정보공학, 생명공학 및 첨단과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그 기초가 되는 초·중등학교의 과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하에 초·중등학교에서 '만인을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이라는 구호를 걸고 과학교육을 피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1984년 1월 전기 중등교육 단계인 콜라주(collage) 개혁을 시행하면서 기술 교육을 강화하였다. 일본에서 역시 1984년 8월 『임시 교육 심의회』가 발족되면서 사회와 과학이 통합된 제물학습 교과로부터 과학·기술 교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다.¹³⁾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국가 주도의 과학에 대한 관심의 시기가 미국의 정책 기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1980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레이건은 후보 당시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회복한다는 것을 핵심 공약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1983년에는 21세기를 향해 우주에 전략적 방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창함으로써 미국의 국방력 강화 노력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⁴⁾ 1960년대부터 축소되어오던 연방 정부의 군사 연구 개발비 규모는 1980년대에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1984년부터 1987년까지의 미국의 총 연구 개발비 지출 규모 증가의 약 42%의 증가가 전략방위 구상과 관련되어 있다.¹⁵⁾ '국가의 위기'라는 과학교육의 강화를 위한 미국 국민을 향한 공표는 신냉전시대의 공화당 정부의 강화된 국방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전 세계적인 국가적 정책은 이와 같이 군사적으로 각국이 경쟁하기 시작한 경직된 80년대의 국제정세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2) 한국의 과학교육진흥정책과 그 배경

한국 역시 과학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은 1983년 이후 전례 없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과학교육과 관련된 한국의 관심은 앞에서 서술한

나도록 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과학교육과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13) 최영재 외, 『초등과학교육』 (형설출판사, 2001). 75~106쪽.

14) 윤정로, 같은 책, 226쪽.

15) 윤정로, 같은 책, 228쪽.

국제 정세 뿐 아니라 1980년 집권을 시작한 제5공화국의 경제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했다. 동시에 과학교육으로 상징되는 첨단 과학 연구에 대한 민간 분야에 대한 욕성은 새로운 정부의 경제 구조 체계모니 장악 및 이미지 쇄신과 관련이 깊은 동시에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1980년대 들어 민간 분야의 주도로 넘어가게 된 사회적 흐름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윤정로는 1980년대 들어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이 민간 자본 주도로 전환되었음을 지적하며 그 예로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과 금성의 주도로 인한 성장을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1980년대의 과학기술진흥정책은 국가 주도의 설비와 자본의 투자가 아닌, 개개인의 연구와 민간 주도의 산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한 새로운 국가 권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윤정로는 1980년대 한국의 경제 자유화 결정을 분석하며 국가 개입의 철회도 국가 권력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¹⁶⁾ 이와 같은 개개인과 민간의 연구가 국가의 부를 형성한다는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는 과학교육 및 과학영재교육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하였다.

당시의 관보 등에 투고된 기사 및 논문들은 당시의 과학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보여준다. 이세용은 1983년 『국회보』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하고 장래 첨단과학의 역군의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이를 강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를 위해 과학책 읽기 및 과학

글짓기 대회, 모형과학KIT대회 등을 더욱 장려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과학지나 일반 대중을 위한 과학지를 재미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꾸며 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학에 대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쓸 수 있는 저널리스트를 장기 안목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¹⁷⁾ 김정흠은 정보통신 기술 및 유전공학, 항공·우주공학 등의 고 부가가치성 등을 언급하며 과학 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여 국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⁸⁾ 또한 임태성의 논문에서는 과학 기술 발전의 세계 동향과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위해 과학 영재교육을 제안하기도 한다.¹⁹⁾ 이준해가 1983년 『문교행정』에 기고한 「서울시 과학교육 진흥방안 추진계획」에 의하면, 학생들의 과학적인 연구소양을 배양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 실험실과 과학관, 관찰원 등이 당시 정책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학생 과학관 및 과학고등학교 설치, 수학 및 과학 경시대회와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등을 본격적으로 정책 안에서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⁰⁾ 이러한 글들은 당시의 관점이 과학기술교육을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도구적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

17) 이세용, 「우리나라 科學技術振興의 課題」, 『국회보』,國會事務處, 206('83.12) .64-67쪽 참조.

18) 김정흠, 「과학기술 진흥만이 우리의 살 길」, 『수도교육』,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76('83.05) ,37-42쪽.

19) 임태성, 「우리나라의 科學技術振興政策에 관한 研究:高級 科學技術人力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3.

20) 이준해, 「서울시 과학교육 진흥방안 추진계획」, 『문교행정』, 문교부, 13('83.03) ,93-96쪽.

16) 윤정로, 같은 책, 173쪽.

한 글들은 교육 정책 안에서 실현되었다.

1983년 7월에는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과학관련 대회가 국가차원에서 청소년 과학경진대회의 종합 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과기처가 주관하는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다. 1984년 7월 모형 자동차 경진대회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9월 모형 항공기 공작경진,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가 한국항공대학에서 개최되었다. 11월에는 이 대회와 관련하여 장학사 심포지엄 개최 시 과학기술진흥방안 토론회 과정 중 실기 공작교육 강화를 위해 경진대회를 반영하기로 결정되기도 하였다.²¹⁾ 이 대회에서는 과학 글쓰기, 과학 상상화 그리기, 모형 항공기 대회, 과학 탐구 대회 등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교육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영재교육과 관련해서는 1983년 이후, 경기과학고등학교가 개교하였으며, 다양한 국가 수준의 과학교육 정책이 속속 발표되었다.

3. 1980년대의 경제 구조조정과 첨단과학

과학교육 및 과학영재교육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이 시기의 첨단 과학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꾸러기 발명왕>의 각각의 주인공들 역시 각각 로봇 공학, 에너지 연구, 유전 공학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1970년대의 SF애니메이션들이 중화학공업과 관련된 강력한 국가를 암시하고 있음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1980년대는 중화학 공업 위주의 1970년대와는 달리, 정보통신 및 우주공학, 생명공학 등 최첨단 과학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의 경제구조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80년 집권한 새 정권은 구정권과의 단절과 경제 회복을 통한 정치적 정당성 획득을 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법 중 가장 먼저 취해진 조치는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의 축소였다. 중화학 공업은 외국의 투자자본과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투자의 감소는 대 재벌에 대한 국가지원의 감소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²²⁾ 따라서 첨단 과학에 대한 관심은 박정희 정권 경제 정책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새로운 분야의 개척이기도 했다.

첨단 과학과 관련된 연구는 동시에 ‘고 부가가치’산업으로 상징되었다. 1970년대 후반의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의 원인은 과도한 투자를 요하는 중화학 공업에의 집중으로 그 원인이 분석되었다. 첨단 과학은 시설보다는 인력 투자를 통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어조는 당대 과학교육에 대한 글에도 나타나 있다. 김정흠은 자동차에서 제트비행기, 그리고 정밀전자제품으로 갈수록 원자재가 큰 폭으로 낮아져 부가가치가 높아짐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사실은 정밀기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되새겨 주고 있다. 자원부족이면서도 인구밀도는 세계제3위라는 인구과밀인 우리나라가 살아나갈 길은 제트여객기나 정밀전자제품, 정밀화학, 첨단공학제품, 광전산업시스템 산업기술 등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어 파는 정밀과학, 정밀기술을 개발하고 개척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²³⁾

21) 한국과학창의재단홈페이지(<http://nysc.scienceall.com>).

22) 윤정로, 같은 책, 172쪽.

23) 김정흠, 같은 글.

그의 글에서 정밀 기술은 선택요건이 아닌 나라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처럼 묘사된다. 같은 글에서 그는 생명 공학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언급하고 있다. 생명공학은 곧 식량증대와 연결된다. 그는 pomato라는 ‘가지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뿌리에는 감자가 열리는 작물’을 특별히 언급하며, 옥수수처럼 큰 쌀알, 바닷물에서 자라는 벼 등을 언급하며 식량생산에 있어서 기술을 활용한 생산 증대를 논하고 있기도 하다. 1980년대의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²⁴⁾은 200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재앙과 공포의 원천이 되었으나, 1980년대에 대두되었던 식량위기의 공포 앞에서²⁵⁾ 이는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희망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식량부족의 공포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한국의 경우는 유도 피아적 미래를 약속하는 기술로 묘사되었다.

첨단과학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진보의 키워드였다. 1985년 발행된 학생과학교육문고의 『2001년의 세계』라는 책에서는 갖가지 첨단 과학으로 발전된 조국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²⁶⁾ 첨단과학은 박정희의 유신 체제와 단절을 고하면서도 연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제5공화국의 새로운 진보와 속도를 상징하고 있었다. 박정희 시대의 농지 정리, 품종 개량으

로 상징되는 식량증대는 꿈과 같은 유전공학으로 대체되었으며, 고속도로와 자동차가 상징하는 유신시대의 근대화의 속도는 광케이블과 정보기술, 컴퓨터 등이 상징하는 보다 빠른 속도로 대체되었다. 김한상은 1970년대 영화인 <팔도강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추구한 것은 서구의 속도에 부합하는 ‘속도’의 쟁취였다고 말하며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와 히틀러의 아우토반을 동일선상에 놓는다. 그는 폴 비릴리오를 인용하며 속도는 권력의 다른 이름이며, 국가는 속도를 지배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한다고 말한다.²⁷⁾ 1980년대 초반의 첨단 과학은 곧 신군부의 ‘보다 더 빠른’ 속도, 즉 더 강한 권력이었으며, 구정권의 중화학공업을 대체하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새로운 정치경제적 슬로건이기도 했다. 따라서 새로운 정권에게 있어 과학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매진해야 할 과제였던 것이다.

III. <꾸러기 발명왕>의 프로퍼간다적 성격

<꾸러기 발명왕>이 과학 교육을 진작하는 국가의 정책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본 장에서는 이 영화가 교육 영화보다는 프로퍼간다적 성격을 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꾸러기 발명왕>을 과학학습 만화영화라는 범주에서 볼 때 부족한 점은 이 영

24)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인 것으로, 1980년대 당시 미래의 식량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첨예한 관심을 끌었다. 알게니(algeny)는 1980년대 생명공학시대의 주요한 키워드이다. 이는 연금술(alchemy)의 변형어로서 1958년 유전공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조슈아 레더버그 교수가 만들었으나 1980년 체레미 리프킨이 저서 『알게니』(1983)에서 ‘알게니의 최종목표는 완전한 생물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생명공학 시대의 신조어가 되었다. 이인식, 「유전공학의 공포와 약속」, 『녹색평론』 99.5-6월호.

25) 1980년대에는 아프리카의 기아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식량 위기에 대한 공포가 전파되었다.

26) 학생과학교육연구회 편, 『2001년의 세계』, (도서출판 마당, 1985).

27) 김한상, 『조국 근대화를 유담하기: 박정희 정권 홍보 드라이브, <팔도강산>10년』 (한국영상자료원, 2007), 56~79쪽.

화가 실질적으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거의 무관심하다는 점일 것이다. 어린이 발명왕들을 다룬 이 영화는 서사 구조나 인물 구성 등의 영화 스타일에서 학습만화가 아닌 프로퍼간다적 속성을 드러낸다. 박성희는 <대한 뉴스>에 사용된 프로퍼간다의 문법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상황이 행위자를 이끄는 드라마의 설정, 즉 국가는 근대화를 향해 가는 집합체이고 미래(근대화된 조국, 잘사는 나라 등)를 표상하며 국민은 현재(농경사회, 빈곤 등)에 머무르며 관의 의지에 협력하고 따르는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고, 둘째로 사적인 개인은 집단적 행동 안에 소실된다. 셋째, 반대급부의 실종, 즉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부가되는 반대 의견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조명이 최소화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²⁸⁾ <꾸러기 발명왕> 안에는 이러한 프로퍼간다의 문법적 구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꾸러기 발명왕>이 담지하고 있는 것은 성실하게 연구하는 어린이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 홍보 영화의 성격에 보다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도입부 내레이션의 계몽적 성격

<꾸러기 발명왕>은 학습만화영화풍의 과학사에 대한 간략한 요약으로 시작된다. 이 도입부는 영화의 본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류의 진보와 유명 과학자들의 업적,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이 도입부가 가장 값어치는



그림 2<꾸러기 발명왕>의 도입부

것은 1983년 일본에서 제작된 <미미의 컴퓨터 여행>(원제 : ミームいろいろ夢の旅) 인데 <미미의 컴퓨터 여행>이 역사 속의 과학자 및 발명가들의 전기를 짧은 에피소드로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며 관련된 과학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반하여, <꾸러기 발명왕>의 도입부는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한국의 과학기술의 역사 및 뉴턴이나 다윈 등 유명 과학자들의 일대기를 나열하며 이 모든 것이 인류의 진보 및 국가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적 의식을 고취한다. 이 장면은 남성 내레이터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데, 이러한 내레이션은 일반적인 교육영화보다는 문화영화 혹은 대한 뉴스 등에서 흔히 사용했던 계몽적 어조를 띄고 있다. 박성희는 <대한 뉴스>의 내레이션을 분석하며, 대한 뉴스의 내레이터 전달 방식은 정보의 일방적 주입이라는 심증을 강하게 하며 현재의 상황보다는 미래의 청사진을 전파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권력과의 거리, 화자의 독립성 부재, 상황의 선별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뉴스 보도물의 형태를 따르고 있으나 국가 지도자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조국 근대화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며, 다양한 의식계몽 캠페인을 주도한 선전,

28) 박성희, 앞의 글, 344쪽.

혹은 유사 선전의 범주에 든다고 말한다.²⁹⁾ <꾸러기 발명왕>의 도입부 내레이션 역시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먼 옛날 신석기 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이처럼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인류의 과학 문명은 시간을 다투며 발전을 거듭하며 전자 산업은 물론 유전공학 생명공학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의 발달은 로봇 만능시대를 열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우주 항공산업의 발달을 가져와 우주 왕복선과 인공위성들이 지구 주변을 비행하며 정보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태양계와 우주 저 먼 우주에 발을 내딛게 된다. 우리 인간은 이 넓고 무한한 우주 안에서 너무나 작고 미약한 자신임을 깨닫고 올바른 지식 새로운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되겠다. 따라서 2000년대의 주인이 될 어린이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높은 과학기술과 폭넓은 과학 이론 그리고 즐기찬 창의력을 꾸준히 연마해 나아가야 하겠다.

내레이션의 어조, 즉 ‘~해야 하겠다’ 는 어미의 사용은 <대한 뉴스>등의 선전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정보 전달보다는 설득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계몽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내레이션의 내용 또한 인류의 진보가 과학적 발견 및 발명에 있음을 강조하며, 첨단공학에 대한 개개인의 연구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 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미래가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 나가’ 기 위함이며, ‘우주를 정복’ 한다는 제국주의적 슬로건과 관계되어 있기도 하다 는 것이다.

영상 안에서 보여지지 않은 음성 존재는 특수한 능력을 부여받는다. 미셀 시옹은 보여지지 않은 음성 존재는 고대로부터 종교 및 의식과 관련되어 왔으며 이러한 금지된-보기의 규칙은 스승 또는 신, 성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형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의 목소리는 도처에 존재하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³⁰⁾ <꾸러기 발명왕>의 남성 내레이션의 전지적 성격은 국가 권력의 목소리와 관련지어 바라볼 수 있다. 이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면서 서사를 초월해 작품 제작 주체의 의지를 전달한다. <꾸러기 발명왕>의 독특한 도입부는 이 영화가 비슷한 그림체를 따르고 있는 ‘학습만화영화’임을 표방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몽적인 내레이션으로 이러한 과학교육의 목적이 ‘국가적 요구’임을 관객에게 강력하게 전달한다. 이는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목소리이다.

2. 프로퍼간다적 이야기 구조

<꾸러기 발명왕>의 본편은 로봇 발명에 관심을 가진 강민의 전학으로 시작된다. 의사 아버지를 두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강민은 시골로 전학하는데, 친구인 미라, 우람 등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며 이들은 각각 태양열과 생물학에 관심이 있다. 한 편,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최홍만은, 남부러울 것 없는 강민에게 질투를 느끼고 적대적 감정을 표현한다. 홍만은 유전공학에 관심이 있으며, 슈퍼토끼를 개발하려고 계속 실험중이지만, 계속적으로 실패하여 번번히 수많은 토끼를 죽이게 되고, 생활이 어려운 어머니가 더 이상 토끼를 사 줄수 없다고 하게 되자 이웃집 토끼까지 실험대상으로 삼아 죽게 하는 등, 실험에는 진전이 없다. 이웃집 어른과 어머니의 이해로 토끼실험은

29) 박성희, 같은 글, 327쪽.

30) 미셀 시옹, 『영화의 목소리(La Voix au CINEMA)』, 박선주 역, (동문선 1993/2005), 37~52쪽.

계속되지만, 홍만은 쓰러지고, 강민의 아버지는 홍만이 시한부 생명이라고 진단한다. 마침내 강민의 로봇, 홍만의 슈퍼토끼 실험이 성공하고 강민 아버지는 홍만을 구할 수 있는 약물 실험에 성공한다. 결국 과학경진대회에서 강민과 홍만은 공동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나머지 친구들도 모두 수상을 하게 된다. 강민 아버지의 실험도 성공하여, 홍만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들 모두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위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 본편의 이야기는 ‘과학 학습’ 보다는 과학을 연구하여 국가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어린이들의 이야기이다. 이는 상황이 행위자를 이끄는 드라마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미미의 컴퓨터 여행>이 서구의 여러 과학자들의 일대기를 다룸으로서 기초과학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음에 반해 전혀 다른 어린이들의 집단적 성공기이며, <미미의 컴퓨터 여행>의 무국적성과는 다르게, 한국적 배경과 국가주의적 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아이들이 성공이 곧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것은 이 모든 서사의 욕망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다.

<꾸러기 발명왕>에서 부각되는 집단적 행동 또한 프로퍼간다적 성격을 보여준다. 박성희가 지적한 대로, 사적인 개인은 집단적 의지에 매몰되어 있다. 영화 안에서 홍만과 강민과의 갈등 구조가 부각되어 있지만, 이는 집단적 목표 안에서 해결된다. 역경을 딛고 연구에 성공하는 홍만과 이를 돕는 헌신적인 친구 강민의 모습은 드라마의 주축을 이룬다. 주인공들은 모두 국가 발전을 위한 연구목표 달성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에 속

해있고 갈등의 해결은 홍만의 연구 성공과 강민의 전적인 도움에 의한 홍만의 건강 회복으로 결정된다. 홍만의 연구의 성공 뒤에는 옆집 아저씨의 재정적 노력이, 강민의 도움 뒤에는 강민 아버지의 의학적 도움이 존재하며 이는 대통령의 표창으로 국가 가부장적으로 마무리 된다. 등장인물들이 모두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며 얼굴이 보이지 않는 지도자의 의지에 부합하는 이러한 내용의 구조는 프로퍼간다 장르의 전형적인 스타일이기도 하다. 소비에트의 프로퍼간다 미술가인 타트야나 야블론스카야(Tatyana Yablonskaya)의 <옥수수>는 사실주의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노동의 현상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림 속에서는 고생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노동을 즐겁고 활기찬 모습으로 보여준다. 정겨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 가운데 여성 노동자들의 얼굴은 자긍심과 사회주의를 향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다.³¹⁾ 이는 박성희가 지적한 반



그림 3) 타트야나 야블론스카야, <옥수수>, 1949.

대급부의 실종, 즉 노동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나타내고 집단적으로 관의 의지에 민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스

31) 토비클락, 앞의 책, 87쪽.

타일은 <꾸러기 발명왕>의 서사에 지속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영화의 인물의 성격 및 배경은 그러한 점을 더욱 강화시켜 보여준다.

3. 전 국민을 통합하는 인물과 배경

프로퍼간다적 성격은 등장인물들의 성격 및 구성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 작품의 학생들은 모두 모범적인 학생들이며,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인물들은 모두 공동체 의식으로 뭉쳐져 있다.

강민은 로봇 발명에 관심을 가진 어린이이다. 강민의 친구인 미라는 태양열 냄비를 연구 중이다. 강민의 라이벌이자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홍만은 슈퍼 토끼의 개발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 이들을 둘러싸고 의학자인 강민의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홍만의 할머니와 과학을 지도하는 아이들의 선생님, 해저 공원의 강민의 외삼촌 등이 이야기를 구성해 나간다. 주인공인 아이들이 각각 상징하는 것은 첨단 과학 분야로서, 각각 유전공학, 로봇공학, 에너지공학 등인데, 이들이 '과학' 보다는 '공학'에 가깝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는 70년대 프로퍼간다 영화인 <팔도강산>시리즈와 비교하여 바라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 진다. 김한상은 <팔도강산>시리즈의 가족 구성을 분석하며 그 속에 여러 계급과 계층이 녹아들어 있다고 말한다. 주인공 노부부의 사위와 딸들은 서울부터 전라·충청·경상·강원의 4개 지역과 계급적으로는 농민과 자본가, 산업적으로는 농수산업과 경공업 ·

중공업에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은 전체 국민을 포괄하며 이는 전체 가족을 국가에 유비시키는 당대의 가족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국가에 대한 몽타주를 이루고 있다.³²⁾ 인물 구성을 통해 국가에 대한 몽타주를 구성하는 것은 <팔도강산>의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프로퍼간다의 특성 중 하나이다. <꾸러기 발명왕>의 배경은 농촌처럼 보이지만 빈곤한 홍만의 배경을 제외하고 특별히 농촌의 흔적을 엿보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강민의 전학 시퀀스는 중산층에 속하는 강민의 가정을 홍만의 배경과 결합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강민의 아버지는 한국 최고의 의사로 설정되어 있으며, 중산층 이상으로 묘사된 미라 등 어린이들의 가정은 다양한 계층을 한데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홍만의 배경과 관련된 변화는 배경이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관련을 짓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대로 박성희와 김한상의 연구에서는 모두 농촌적 배경이 국민의 빈곤한 현재를 암시하며 이것이 국가가 암시하는 근대화된 조국, 잘사는 나라, 건설과 개발 등과 대비됨을 알 수 있었다. <꾸러기 발명왕>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홍만의 경우, 홍만의 모친이 홍만의 연구를 반대하고 있을 때, 이 가정은 샴바느질과 농촌식 가옥구조, 토끼장이나 집안 주변의 풍경 등을 통해 전 근대적인 배경과 빈곤을 연결시키고 있지만, 홍만의 모친이 마침내 홍만의 연구를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 홍만의 모친은 열쇠로 그동안 잠겨 있던 홍만 부친의 방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 부친의 방은 그동안의

32) 김한상, 앞의 책, 30쪽.

홍만이 처해있던 농촌적 가정이 아닌, 근대적인 모습의 서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퀀스는 전근대적인 빈곤에 사로잡혀 있던 홍만의 가족이 죽은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계급적 지위를 회복하는 장면이기도 하며, 홍만은 이로서 자신의 연구의 성공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죽은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되찾는 이 시퀀스는 서예 족자나 도자기 등과 연관되어 민족주의적인 암시를 주고 있기도 하다.



그림 4) 홍만 아버지의 방

<꾸러기 발명왕>의 각각의 인물과 가족 구성은 따라서 각각의 계층에 속한 어린이들과 각각의 첨단공학 분야를 상징하며, 어린이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이 가정의 과학과의 연계성 안에 자리한다. 이는 ‘모든 계층의 어린이가 첨단공학 연구에 매진하여 부를 이룬다’는 국가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담지한다고 볼 수 있다.

4. 프로퍼간다적 영화 스타일

<꾸러기 발명왕>의 프로퍼간다적 속성은 이 영화의 미술 스타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꾸러기

발명왕>의 미술에서 특징적인 점은 무엇보다도 김청기 감독의 다른 필모그래피와 비교하여 살펴볼 때, 상당히 이질적인 캐릭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꾸러기 발명왕>의 어린이들은 김청기 감독의 다른 애니메이션에서처럼 희화화되거나 남성성 혹은 여성성에 있어서 과장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사실상 7·80년대의 초등학교 교과서의 삽화와 더욱 닮아 있다.



그림 5) 1970년대 도덕교과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아동의 묘사 방식은 소비에트나 중국, 북한 등 공산국가의 프로퍼간다 미술 양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멘 쿠이코프(Semen Chuykov)의 《소비에트 키르기스 공화국의 딸》이라는 작품은 1949년 스탈린 상을 수상한 작품으로서 일반적인 이데올로기 기호들을 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여학생의 고정된 시선과 앞을 향해 전진하는 등교 모습은 그녀의 모범적인 태도 뿐 아니라 교육의 진보성을 상징한다.³³⁾ 앞

33) 토비클락, 앞의 책, 92쪽.

을 향해 진진하는 아동의 모습은 <꾸러기 발명왕>의 포스터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포스터에서는 흥만과 강민 두 어린이의 모범적 적인 태도와 함께 여러 어린이들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앞을 향해 진진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림 6) 세멘 쿠이코프, <소비에트 키르기스 공화국의 딸>, 1948.

정면과 위를 바라다보는 모습은 소비에트 프로퍼간다에서 공식화되어 사용되었으며, 이는 현재와 미래의 결합이라는 시간적 중복을 암시하였다. 토비 클락은 이는 진보라는 이미지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으며 전신탑, 기차 등 속도를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농촌 풍경에도 등장했다고 말한다.³⁴⁾

또한 같은 글에 의하면 스포츠 역시 노동과 마찬가지로 집단의 에너지를 목표 달성에 투입하는 건전하고 발전적인 행위를 상징하고 있었다. <꾸러기 발명왕>에서 이러한 장면들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해저 공원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어린이들의 굳은 결의 다음으로 농촌을 가로지르는 기차

를 그린 쇼트가 오버랩되며, 강민의 진취적인 학교 생활은 계주 장면으로 묘사된다.



그림 7) 알렉산드로 데이네카, <8경기장의 계주>, 1947.



그림 8) <꾸러기 발명왕>의 계주 장면

<꾸러기 발명왕>에서 프로퍼간다 미술의 전형적 기호들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영화 전체를 통하여 산재한다. 그러나 이 영화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미라의 외삼촌의 동작일 것이다. 이 장면은 달리는 기차 안에서 강민에 의해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회고되며 특별히 강조되는데, 이 장면에서 외삼촌은 어린이들 뿐 아니라 관객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이미지는 일차대전 당시의 징병 포스터들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토비 클락에

34) 토비 클락, 같은 책, 92쪽.

의하면 이 이미지들은 '정면을 응시하는 두 눈, 앞을 가리키는 손가락, 사납고 권위적인 표정'등 직접적인 화법으로 구성되어 개인과 국가의 독특한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국민에게 부과된 중대한 의무를 확실히 각인시킨다.³⁵⁾ 미라 외삼촌의 관객 응시는 강력한 국가의 의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퀀스이다.



그림 9) 제임스 몽고메리 플렉, <미군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 1917.



그림 10) 관객을 응시하는 미라의 외삼촌.

따라서 <꾸러기 발명왕>이 그 내용 뿐 아니라

영화 스타일 면에서도 프로퍼간다의 양식을 따르고 있음은 이 영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학교육 및 첨단과학연구에의 의지가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추측케 한다.

IV . <꾸러기 발명왕>안의 국가주의적 메시지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꾸러기 발명왕>은 제 5공화국의 주요한 정책기조를 담고 있는 프로퍼간다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것들은 단순한 영화내의 메시지가 아닌 80년대의 국가와 사회가 어린이인 관객에게 강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다.

1. 국가 발전의 부품으로서의 어린이들

<꾸러기 발명왕>은 과학 학습 만화이지만 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어린이들은 국가 발전의 부품처럼 사용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새로운 사회를 상징하는 동시에 선전의 주요 대상이었던 것은 나치나 소비에트 프로퍼간다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내용이었다. 영화 안에서의 어린이들은 보다 더 나은 국가의 미래에 의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존재이다. 강인의 아버지는 연구에 몰두한 강인의 모습을 보며 다음과 같이 혼잣말을 한다. “녀석 밥잡도 자지 않고 꽤 열심히구나. 장차 공학

35) 토비 클락, 같은 책, 105~107쪽.

박사가 되겠다니, 됐어.” 어린이 개인의 행복과 관련된 장래가 아닌, 어린이 개인을 국가 발전의 도구로 보는 시각은, 해저 공원을 돌아보고 온 후 달리는 기차 안에서 진행되는 어린이들의 대화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강민 : 응. 너희 외삼촌의 말씀이 자꾸 머리에 머물고 있어.
 외삼촌: 너희들은 이 나라의 꿈나무들이야. 여러 우수한 어린이들이 과학자가 되어서 장차 이나라를 이끌어 가야 해. 그러기 위해선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해. 어떤 사물을 보든지 항상 지나치지 않고 분석하고 탐구하는 습관이 생활화되어야 한단다. 너희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강민 : 정말 해내고야 말겠어. 해저에서 일하는 로봇을 만들어 내고야 말겠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로봇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미라 : 그래. 우리 모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면 꼭 이루어지고 말꺼야.

우람 : 나도 먹는것만 신경쓰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걸 해낼 거야."

이 대화 안에서 강민과 미라는 꼭 노력해서 국가 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결심한다. 우람의 대사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비만한 어린이로 묘사된 우람은 이 대사 안에서 개인의 즐거움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먹는 것’보다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겠다는 우람의 태도는 국가를 위해 개인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팔도강산>에서 농지정리를 위해 개인의 토지를 기꺼이 내어 놓는 촌로들의 모습³⁶⁾과도 닮아 있다. 이러한 영화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은 외삼촌의 대사일 것이다. 앞 장에서 언급했던 이 장면은 그가 관객을 손가락의 지적과 함께 응시하며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외삼촌은 어린이들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꿈나무’ 들이며 여러 어린이들은 과학자가 되어

야 한다고 설파한다. 80년대의 과학교육 강화는 다분히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개개의 국민을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보는 권력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한 정권의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는 <꾸러기 발명왕>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이다.

2. 여러 사람의 아버지들 -80년대 권력이미지

국가 권력의 모습은 따라서 영화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영화에서 여성의 모습이 미라의 어머니나 미라처럼 활동적으로 묘사되었을 지라도, 이 영화에서 권위의 부여와 승계는 남성에서 남성으로 묘사된다. 무엇보다 이야기를 이끌어어나가는 두 인물은 강민과 홍만이라는 남자어린이들인데, 이야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홍만을 둘러싼 가부장적 질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홍만의 연구를 가로막은 것은 홍만의 어머니였으며 그녀는 전근대적 상징으로 기능한다. 홍만의 연구를 돕는 것은 옆집 아저씨의 재정적 능력과 학교의 남교사이며, 홍만의 연구는 어머니가 아닌 죽은 아버지의 방을 승계 받음으로 인해 성공으로 방향을 바꾼다. 심지어 홍만의 생명을 구하는 주체도 의사인 강민의 아버지이다.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홍만과 강민의 성공을 축하하는, 그리고 그들 연구의 최종 목적인 수상은 ‘대통령’에 의한 것이다. 홍만과 강민의 수상장면에서 아이들을 제외한 관객들이 온통 성인 남성임은 의미심장하다.

그런데 이는 1970년대 프로퍼간다 영화에서 묘사된 아버지의 모습과는 차이를 보인다. 김한상은

36) 김한상, 같은 책, 67~73쪽.

<팔도강산>시리즈에서 김희갑에 의해 형상화된 아버지상, 즉 유신시대가 보이고자 한 권력의 이미지에 대해 논한다. 그는 강하되 인간적이며, 경제적 능력, 조정자적 지위, 규범적 리더십을 갖춘 존재였다. 그리고 이는 고도성장과 수출 중심 노선, 중화학 공업화 등을 주도해 나가는 경제적으로 유능한 권력이며 국민간의 갈등 요소를 통합하고 계몽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획득하는 권력을 상징한다.³⁷⁾ 흥미로운 것은 그에 반해 <꾸러기 발명왕> 안에서 위와 같은 권력의 이미지들은 다양한 아버지들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 영화에서의 성인 남성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 아이들의 연구를 도와간다. 이것이 앞 장에서 언급한 제 5 공화국의 정치 스타일과 닮아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전두환 정권은 모든 것을 국가 주도 하에 이끌어간 박정희 정권과는 달리 민간 부분의 투자와 연구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고 윤정로는 이러한 철회 또한 국가 권력의 의지라고 분석하였다는 내용은 앞 장에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태도들은 개개인의 연구를 장려하는 ‘과학교육’이라는 기치 아래 녹아 있는 것이었다. 영화에서는 다양한 아버지들에 의해 국가의 여러 역할들이 분산되고, 국가의 모습은 시상식 장면에서 최종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치하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 시상식 장면에서 국가 권력은 태극기 배경을 뒤로 한 남성의 모습으로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림11) 대통령상 수상

3. 두 주인공이 상징하는 권력의 두 가지 얼굴

<꾸러기 발명왕>의 과학교육은 따라서 순수한 진리의 탐구라기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으나, 1980년대의 과학교육의 맥락에서 과학과 발명, 과학자와 기술자가 혼동되어 있고, 이 영화는 ‘순수 과학 학습’ 만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은 첨단공학에 매진하는 어린이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각각의 어린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은 ‘교통 정리를 위한 로봇’이나 ‘태양열 에너지 냄비’, ‘슈퍼 토끼’ 등 하나같이 실용적인 기술이다. 이 영화에 삽입된 몇 개의 본 내용과 유리된 시퀀스들은 어린이들의 연구를 발전된 미래와 연결시킨다. 강민과 홍만의 꿈은 국가적 차원의 과학교육이 진정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홍만의 환상 시퀀스에서 홍만은 토끼들을 슈퍼 토끼로 변화시키며, 슈퍼토끼들과 환상 속에서 노닌다. 그러나 사실상 이 슈퍼토끼들은 식량 증산을 위한 것이며 홍만의 연구는 수많은 토끼가 묻힌 묘지를 뒤로

37) 김현상, 같은 책, 45~48쪽.

한 것이기도 하다. 자연을 정복해야 할 대상이며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희생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태도는 어린이들이 미래의 외삼촌을 방문하는 해저공원 방문에서 극대화된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해저 공원을 방문하여 잠수정을 타고 해저 농장을 구경하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은 자연에 대한 입장을 보여준다.

우람 : 저 고래 한 마리면 나 혼자 십 년은 먹겠구나!

.....

외삼촌 : 저 상어는 보기엔 흉측해 보이지만 무서울 게 없다. DNA유전자를 바꾸어 온순한 성질로 개조를 했거든. 하하하

.....

외삼촌 : 잘 봤지? 이 무한한 바다를 두고 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을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지. 삼면인 바다를 활용하면은 우리 국력은 그만큼 튼튼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지?

대화 속에서 고래는 식량으로 간주되며, 상어는 유전공학으로 길들여진다. 해저 공원 시퀀스는 미역밭이나 새우 양식 등을 전시하며 인간에 의해 정복된 바닷 속을 보여준다.

그러나 <꾸러기 발명왕>속의 발명왕들이 달성해야 하는 국가 목표가 식량 증대나 에너지 등의 경제적 목표인 것만은 아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어린이는 홍만과 강민, 두 어린이인 것이다. 강민의 환상 시퀀스는 과학교육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이자 식량 증대보다 더 중요할 지 모르는 과학교육의 목표를 보여준다. 강민은 이 영화에서 보다 가부장적으로 정통적인 후계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계주 경주의 우승으로 보여주고 있듯 강민한 체력을 갖추고 여주인공 미래의 남자친구인 주인공적 존재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야기의 중심이

아닌 듯 보이는 강민은 그의 환상으로서 그의 상징과 중요성을 명확하게 한다.

강민의 환상은 홍만과 함께 그가 연구 중인 로봇을 타고 우주로 향하는 것이다. 강민의 로봇은 교통정리 로봇이지만 실제로 이 영화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빛의 속도’를 구사한다. 빛의 속도로



그림 12) 빛의 속도로 달리는 두 소년

움직여 달는 우주에서 아이들이 행하는 일은 탐험이나 자원 탐사 등의 행위가 아닌, 로봇과 전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시퀀스는 SF 애니메이션적 전통에 따라 삽입된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 로봇은 그 색채와 가슴의 별 등 명백히 북한군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림 13)북한군을 닮은 로봇

이 시퀀스는 속도의 지배는 곧 국가 권력을 암

시한다는 비탈리오의 명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빛의 속도에 의해 정복된 우주에서 두 아이가 만난 것은 또 하나의 국가적 소명이었던 것이다. 남자 주인공이 상징하는 로봇 공학, 그리고 강력한 속도와 결부된 군사적, 그리고 반공의 이미지는 첨단 공학 그리고 과학교육의 국가 차원의 강조가 80년대 정권의 두 가지 특성인 분단 상황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 정권의 유지와 이를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경제 발전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꾸러기 발명왕>의 두 남자 어린이는 군사정권이자 경제발전의 상징이라는,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전두환 정권의 두 가지 페르소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교육적’이라는 가치는 때로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 교육의 뒤에는 반드시 어떤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주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주체의 의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규명하는 것은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꾸러기 발명왕>은 오랜 기간 동안 교육영화로 기억되어 왔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꾸러기 발명왕>이 순수한 과학학습영화가 아닌, 1980년대의 중요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있는 프로퍼간다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발명에 매진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그린 교육용 애니메이션으로 알려져 왔던 이 영화는 영화 스타일, 즉 내용이나 인물 배치, 개별 시퀀스의 특성이나 시각적

특성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프로퍼간다적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강민과 홍만이라는 두 주인공들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들의 아이콘일 뿐 아니라 80년대 군사정권의 두 욕망이자 이데올로기인 군사적 강화와 경제 개발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꾸러기 발명왕은 새로운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었던 프로퍼간다 영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중립적인 과학교육물로 알려져 온 <꾸러기 발명왕>은 김창기 감독의 ‘반공교육’ 영화인 <똥이장군> 등의 프로퍼간다적 속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80년대의 어린이 문화를 관통하고 있었던 과학 교육에 대한 열기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과거의 이 어린이용 정책영화는 오늘날 반성적 시각을 제시한다. III장에서 언급된 1980년대에 시작된 과학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은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자연을 정복과 개발의 대상으로 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에 하기 위해 희생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들은 아직까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교육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들이 국가주의적 속성에 많은 부분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과학교육은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 아닌, 어린이들을 국가발전을 위한 도구로 조련하는 수단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영어교육을 바라보는 태도와도 유사하다. 동시에 대학교육이나 문화를 바라보는 도구주의적 입장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꾸러기 발명왕>안에 담겨 있는 1980년대의 모습들이 2000년대에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지도 상

기할 필요가 있다. 흥만의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 의지는 희망찬 것이었으나 오늘날 GMO농산물을 둘러싼 공포들은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도리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상 가장 흥미로운 것은 <꾸러기 발명왕>에 나온 이들 어린 발명왕들의 미래의 모습 일 것이다. 1980년대의 어린 발명왕들은 과학 키트를 조립하고 납땀을 취미로 삼으며 공대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제기된 이공대 졸업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들은 80년대의 과학 소년소녀들이 결국 그들을 과학기술자의 미래로 이끈 국가에 의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본 연구는 근대 국가에서 제작된 다양한 프로퍼간다 작품들과 <꾸러기 발명왕>의 스타일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므로써 이 영화의 교육적 가치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사, 특히 1980년대의 교육용 애니메이션 영화들에 대해 아직 선행연구가 미진하여 이와 관련된 심층 분석을 시도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1980년대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다른 애니메이션 영화, 특히 비정치적이라고 알려져 온 교육영화들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그 프로퍼간다적 문법을 정교화하며 관련된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의미를 밝혀내는 것은 이 연구가 던지는 시사점이며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사 연구에서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연·김재웅, 「한국애니메이션에 있어 문화정책의 영향과 그 변용 : 1960~1980년대 중반, 반공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07.
- 김정흠, 「과학기술 진흥만이 우리의 살 길」, 『수도교육』,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76(1983.5).
- 김준양, 「로봇 태권V와 두 가지의 근대」 『로봇태권V기술복원백서』, 영화진흥위원회, 2005.
- 김한상, 『조국 근대화를 유람하기 :박정희정권 홍보 드라이브, <팔도강산>10년』, Film Story 총서04, 2007.
- 박성희, 「프로퍼간다의 문법: 버크의 드라마티즘에 기초한 1960년대 <대한뉴스>의 집단동기 분석」 『韓國言論學報』, 53권1호, 2009.
- 방정배, 최윤희, 『여론과 정치철학』, 나남출판, 1989.
- 윤정로, 『과학 기술과 한국 사회』, 문학과 지성사, 2007.
- 이세용, 「우리나라 科學技術振興의 課題」, 『국회보』, 國會事務處, 206(1983.12)
- 이인식, 「유전공학의 공포와 약속」, 『녹색평론』, 6월호(1999. 5).
- 이준해, 「서울시 과학교육 진흥방안 추진계획」, 『문교행정』, 문교부, 13(1983.03)
- 임태성, 「우리나라의 科學技術振興政策에 관한 研究:高級科學技術人力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최영재 외 7인 공저, 『초등 과학 교육』, 형설출판사, 2001.

학생과학교육연구회 편, 『2001년의 세계』, 도서출판 마당, 1985.

한국영상자료원, 「[특별인터뷰] 애니메이션 감독 김청기를 만나다」, 영상자료원, 2009.

허인욱,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사』, 신한미디어, 2002.

Clark, Toby, Art and Proparganda in the

Twentieth Century : the Political Image in the Age of Mass Culture, in the series "Art in Context", 이순령 역, 『20세기 정치선전 예술』, 예경,2000.

Geoffrey Nowell-Smith ed. The Oxpord History of World Cinema, 이순호 외 역, 열린 책들, 2005.

Michel Chion, La Voix au Cinema, 박선주 역, 『영화의 목소리』, 동문선,2005.

ABSTRACT

A study for Kureougy Balmyungwang (Prankster Invention King), and its characteristic as a propaganda

Park, Yoo-Shin

This study analyzes Kureougy Balmyungwang (Prankster Invention King), produced by Chung-ki Kim in 1984. [Prankster Invention King (Kureougy Balmyungwang)] has been known as science education film. However, around the time this film was produced in 1980s in South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is basis for development of nation driven by military dictatorship for increasing national welfare and individual capability. In this regards, Kureougy Balmyungwang (Prankster Invention King) is an animated movie not only about education and science, but also a propaganda describing children making every effort to develop their country by scientific research. In this regards, this film is in accordance with Director Kim's other animated films such as General Toli, who also served for the government, advertising its policy.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yzes Kureougy Balmyungwang (Prankster Invention King) with various propaganda works after World War I, to clarify the propaganda characteristic and contemplate the contemporary meaning of this work.

Key words: Kureougy Balmyungwang (Prankster Invention King), Science education, propaganda , Chung-ki Kim, 1980s.

Key Word : proparganda, Science Education, Greatest Inventor Kids Kim, Chung-Ki

박유신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과정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 221
Tel : 02-820-5410
hoogh@naver.com